

신사고 운동과 번영신학
- <긍정의 힘>의 원류에 대한 탐구 -

이원석(중앙대 문화연구학과 박사 수료)

1. 서언

‘끌어당김의 법칙’(law of attraction)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우리 삶에 나타난 모든 것들은 우리 마음에 그린 그림, 곧 생각과 상상이 끌어당긴 것들이라는 것이다. 이 알파한 신비주의적 개념은 무려 일억부가 넘게 팔린 세계적 베스트셀러인 <시크릿 The Secret>을 통해 온 국민의 교양이 되었다. 이 제목이 가리키는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¹⁾ 이는 많은 대중에게 신선한 주장이었고, 그 영향력은 지금도 ‘비더시’(비욘드 더 시크릿)라는 네이버의 대형 카페를 통해 확인된다.²⁾

<시크릿>은 한국의 경우에도, 2007-8년 종합베스트셀러 순위 1위에 등극하였다.³⁾ <홀로서기>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이것은 곧 끌어당김의 법칙이 하나의 문화가 되었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독교인으로서 더욱 주목해야 할 점은 <시크릿>이 국내에 출간되기 2년 전에 <긍정의 힘 Your Best Life Now>(두란노, 2005)이 출간되었고, 또한 이것이 2년 연속 기독교 베스트셀러 순위 1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에 있다. <긍정의 힘>은 <시크릿>의 기독교 버전이라 할 수 있는 자기계발서이다(양자 사이에는 “기이한 유사성”이 있다⁴⁾). 그러니까 끌어당김의 법칙이 세상 문화로 자리 잡기 전에 먼저 기독교 문화가 되었다는 뜻이다.

한데 이는 사실 한국 교회 안에서 제법 오래된 사조이다. 누구나 다 들어봤을 조용기 목사의 4차원의 영성이야말로 실은 바라봄의 법칙의 한국적 버전이다. 이 조악한 사상이 성경의 가르침과 무관하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들의 주장 자체에 좀 더 집중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간단하다. 도대체 이 사상의 분류는 무엇일까? 혹은 그 시작과 본질이 무엇일까? 바로 신사고 운동(new thought movement)이 그 분류이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은 분명해진다. 본고에서는 이 운동의 본질을 점검하고자 한다.

2. 신사고 운동

2.1. 본질: 신사고 운동의 정신 이해

신사고 운동은 원래 믿음에 의한 치유를 강조하는 대중 운동이다. 메리 베이커 에디(Mary Baker Eddy, 1821-1910)가 그 창시자라고 흔히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피니어스 파커 스트 콰비(Phineas Parkhurst Quimby, 1802~1866)가 창시하였다.⁵⁾ 콰비의 사후, 에디가

1) 론다 번(Rhonda Byrne), <시크릿 The Secret>(살림, 2007), 19쪽.
2) 카페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cafe.naver.com/beyondthesecret> 2007년 6월 18일에 시작된 이 카페의 회원수는 2015년 5월 11일 현재 84,293명이다. 이름에 걸맞게 <시크릿>의 후속 프로그램 또는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다.
3) 한기호, <베스트셀러 30년>(교보문고, 2011), 389쪽.
4) 행크 해네그래프(Hank Hanegraaff), <바벨탑에 갇힌 복음 Christianity in Crisis : 21st Century>(새물결플러스, 2010), 16쪽.
5) 콰비에 대해 개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고하라. Roy M. Anker, *Self-Help and Popular Religion in Early American Culture - An Interpretive Guide*(Westport, Connecticut & London: Greenwood Press, 1999), 181-193쪽.

이 사조의 창시자로 자처하며, ‘크리스천 사이언스’(Christian Science) 교과를 창설하였기에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왜곡된 정보가 공공연하게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⁶⁾ 이 과학(science)이라는 단어는 19세기 후반 미국의 (과학적 사고에 경도된) 지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이다.⁷⁾ 그러니까 이 신홍 사조가 일종의 자연적이고, 과학적인 법칙을 주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하는 셈이다.

모든 운동이 그러하듯이 이 역시도 복잡하다. 스베덴보리(Emanuel Swedenborg)의 신비주의나,⁸⁾ 독일의 관념론, 인도의 불교나 힌두교나 미국의 초절주의나 개신교 자유주의 등 온갖 것이 들어온 혼합주의적 체계이다.⁹⁾ 그러나 “치유의 잠재력으로서의 마음(생각)의 능력을 신뢰한다는 것에 공통된 초점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¹⁰⁾ 아래에서 다루겠지만, 신사교 운동은 생각하는 정신을 궁극적 실재로 보는 이론 혹은 종교라고 할 수 있다. 이 운동에 부여된 명칭이 새로운 사고(new thought)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신사교 운동의 맥락을 설명하려면, 그 배경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다. 일단 신사교 운동은 미국적 산물이다. 중간 과정을 단축하고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영국에서 건너온 청교도 사조에 대한 비판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¹¹⁾ 신사교 운동의 입장에서 본 청교도는 인간의 죄를 질책하는 것으로 특징되는 경직된 도덕주의에 다름 아니다. 그렇기에 바바라 에런라이크(Barbara Ehrenreich)는 이를 가리켜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아이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칼빈주의 사조에 대한 비판으로 보인다”고 말한다.¹²⁾ 다시 말해 청교도적 칼빈주의가 금욕과 절제를 강조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신사교 운동에 따르면, 1) 무엇보다도 우주의 본질이 정신에 있다. 달리 말해 신은 무한한 정신이다. 2) 그리고 우리의 본질 또한 정신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본질은 신적이다. 3) 그러므로 우리의 정신에 우주의 정신이 조화를 이룬다면, 우주의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해 운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조화의 전제는 우리의 적극적 태도이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의 긍정적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실은 우주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반대의 경우에도 본질은 마찬가지이다. 우리의 부정적 생각이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다.

6) 에디 여사에 대한 간략한 평전으로 다음을 소개하겠다.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 <정신의 탐험가들 *Die Heilung Durch Den Geist*>(푸른숲, 2000) 츠바이크는 여기에서 심리 치료의 선구적 3인방으로 프란츠 안톤 에스머와 지그문트 프로이드와 함께 메리 베이커 에디를 소개하고 있다.

7) 이는 하버드의 역사학자 마스덴(George M. Marsden)이 지적인 바와 같이 19세기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조차 공유하는 입장이다. “근본주의자들은 그 소신이 과학적인 것임을 강조하였지만 자신들의 성경 해석 체계를 어떤 비밀스러운 것으로 결코 간주하지 않았다. 밀의적이고 복합적이며 신비적이고 우화적이지 기타 광신적인 해석은 신학 교수들, 특히 독일 교수들의 독특한 산물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 그들 자신의 체계는 그와 달리, 일반 상식과 보통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명백한 법칙에 따라 사실을 단순하고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조지 마스덴,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 The Shaping of Twentieth Century Evangelicalism, 1870-1925*>(생명의말씀사, 1997), 138쪽.

8) “이것[신사교 운동의 가르침]을 말한 위대한 스승들은 누구인가? 예수, 플라톤, 스베덴보리.” 찰스 해넬,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The Master Key System*>(산티, 2005), 163쪽. 이 세 인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는 스베덴보리이다. 신사교 운동은 그의 상응(相應) 이론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9) Barbara Ehrenreich, *Bright-Sided : How Positive Thinking Is Undermining America* (New York : Picador, 2010), p. 79.

10) 이원석, <거대한 사기극>(북바이북, 2013), 60쪽.

11) 신사교 운동이 생성되는 사상사적 해명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이원석, <거대한 사기극>(북바이북, 2013), 51-9쪽.

12) Barbara Ehrenreich, *Bright-Sided : How Positive Thinking Is Undermining America* (New York : Picador, 2010), p. 79.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질병 혹은 타락이 아니라 고장 혹은 오류에 가깝다. 애초에 우리가 우주적 정신의 일부이기 때문에 잘못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것처럼, 육체적이거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윤리적 타락에 대한 심판이라기보다 정보의 부족에 따른 결과일 뿐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바른 정보에 따른 바른 생각인 셈이다.

2.2. 사례: 신사고 운동의 초기 사상가 제임스 알렌

신사고 운동을 주창한 초기 인물들은 후대에 비교하면 거의 명상가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생각한 마음의 조화를 이루는 구체적 방법은 바로 명상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획득하고자 했던 목표는 내적이고, 외적인 평안이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제임스 알렌(James Allen, 1864-1912)을 들 수 있다. 1902년에 출간된 그의 대표작인 <위대한 생각의 힘 *As a Man Thinketh*>(문예출판사, 2005)이 이를 가장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마음속에 뿌린 생각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곧 행동이라는 꽃을 피우며 기회와 상황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좋은 생각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생각은 당연히 나쁜 열매를 맺는다.”¹³⁾

긍정적인 생각을 강조하는 이러한 주장은 일견 긍정적으로 들린다. 하지만 예수는 이와 다르게 말씀하셨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¹⁴⁾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라 존재(전인격)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는 것이다. 생각을 바꾸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바꾸어야 한다. 달리 말하자면, 성화(聖化)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생각을 다스리는 명상은 훌륭한 영성 수련법이다. 하지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명상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인격적인 접근이 요청된다.¹⁵⁾ 하지만 알렌은 생각을 존재와 동일시하고 있다.

“고통은 나쁜 생각을 한 결과다. 즉 자기 자신 또는 존재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는 표시다.”

만일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는 이러한 이론에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본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것은 우리의 생각에 이상이 생긴 탓이다. 따라서 병원에 가서 육체를 치료받을 것이 아니라, 신사고 운동에서 퍼낸 자기계발서를 통해 생각을 교정해야 한다.

컴비로 대표되는 흐름이 바로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 마음이 건강해야 육체도 건강

13) 제임스 알렌, <위대한 생각의 힘>(문예출판사, 2005), 27쪽.

14) <마태복음> 7장 17-8절. 이에 더불어 12장 33절도 함께 살펴보라.

15)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가장 유용한 접근법을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 1935-2013)의 <마음의 혁신 *Renovation of the Heart*>(복있는사람, 200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분은 우리 성품의 핵심 차원을 모두 변화시킵니다. 물론 첫째로 우리 의지(심령/마음)가 하나님을 향하며 날로 더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의 사고생활, 감정, 육신의 본성과 성향, 대인관계, 영혼의 깊은 무의식이 그분의 성품을 취할 때에만 진척될 수 있습니다.”(9쪽)

해지는 것이다. 애초에 우리의 모든 현실 세계는 우리의 내면 세계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은 마음의 창조, 그 창조의 능력을 강조한다.

3. 신사고 운동의 확장

위에서 언급한 신사고 운동의 대표 저작인 제임스 알렌의 <위대한 생각의 힘>을 비롯한 초기 문헌들은 생각의 힘 자체를 강조하는 명상서라고 할 수 있다.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일종의 수심론으로 새겨 읽을 수도 있다. 그렇듯이 초기 명상가들은 나름의 방식으로 경건한 이들이었다. 지극히 구도적인 이들의 삶은 개인의 평안을 추구하는 경건한 명상으로 표현된다.

하지만 점차로 신사고 운동은 확장된다. 마음의 창조력이 육체의 건강을 넘어 재정의 풍요로 확대 적용되기에 이른 것이다. 가령 1910년에 출간된 월러스 워틀스(Wallace D. Wattles, 1860-1911)의 <부의 비밀 The Science of Getting Rich>(흐름출판, 2010)이 그 좋은 예일 것이다. 그는 책의 말미에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바를 마음 속에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려야 한다. 이 그림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지고의 존재에게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해야 한다. 부자가 되려는 사람은 여가 시간 동안 비전을 묵상하고,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 진실로 감사해야 한다.”¹⁶⁾

아담의 원죄 이후로 존재하는 인간의 탐욕과 이를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자본주의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신사고 운동이 경제적 풍요에 적용되는 것은 필연적인 귀결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적 성공의 비결로서의 활용이 신사고 운동의 처음 의도는 아니었다. 아직 초기 저작에 해당하는 탓에 <부의 비밀>은 이런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삶이라는 것에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만족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물질적 조건을 가지고도 스스로 불행하다는 생각에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적은 것에도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부로 드러난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각자의 행복한 마음입니다.”¹⁷⁾

여기에서 아직 신사고 운동의 초기 이상, 곧 마음의 평안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러나 물론 이와 동시에 그가 이어서 하는 말도 귀기울여야 한다. “부자의 방식이란 원하는 것을 명확히 정하고, 그것을 이미 이루었다고 굳게 믿으려,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행하는 삶의 방식을 말합니다.”¹⁸⁾ 그러니까 부자의 방식이라는 긍정적인 언명으로 은근한 가치 평가를 담아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은근한 평가는 오래지 않아 노골적인 가치 평가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가령 1916년에 출간된 찰스 해넬(Charles F. Haanel, 1866-1949)의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The Master Key System>(산티, 2005)를 보면, 그 점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이 책에 등장하는 (첫 주 훈련 과정을 제공하

16) 월러스 워틀스, <부의 비밀>(흐름출판, 2010), 179쪽.

17) 월러스 워틀스, <부의 비밀>(흐름출판, 2010), 182쪽.

18) 월러스 워틀스, <부의 비밀>(흐름출판, 2010), 182쪽.

는) 첫 장의 첫 테제는 다음과 같다.

“1. 부가 부를 부른다는 말은 모든 면에서 진실이다. 가난이 가난을 부른다는 것도 마찬가지다.”¹⁹⁾

여기에서 부와 가난의 대비를 통해 해넬이 의도하는 바는 무엇일까? 바로 부와 가난이 상호 충돌하는 가치체계라는 것이다. 이는 마치 로버트 기요사키(Robert Kiyosaki)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Rich Dad Poor Dad>(황금가지, 2000)의 제목에 암시된 바와 같은 접근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가난한 아빠’인 친아버지는 낮게 평가하고, ‘부자 아빠’인 친구의 아버지는 높이 평가한다. 이를 통해 부는 좋은 것이고, 가난은 나쁜 것이라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해넬의 이러한 발언은 결코 단편적인 언급에 불과하지 않다. 가령 그 뒤에 이어지는 11번 테제를 보라. “11.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낙천적이고 풍요로워지며, 내부가 풍요로우면 외부도 풍요로워진다.”²⁰⁾ 내부 세계가 조화롭다면, 외부 세계가 풍요로워진다. 육체적으로 안정될뿐더러, 재정적으로 풍족해진다는 뜻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육체적 건강이 아니라 경제적 풍요이다. 풍요는 바른 정신의 필연적 귀결이다.

이러한 입장을 오늘날 가장 뚜렷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론다 번(Rhonda Byrne)의 <시크릿>이다. 이 책은 명백하게 신사고 사조의 계보 속에 놓인 책이다. 이는 다음의 언급을 보면 확실하게 드러난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 수세기 동안 인류를 유린했다. 그건 바로 ‘싫어 전염병’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 관해 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뭔가 행동하면서 결국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해줄 지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당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신사상 운동(new thought movement)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²¹⁾

그리고 이 놀라운 성공작을 통해 론다 번은 ‘풍요에 집중하라’고²²⁾ 강권하고 있다. 심지어 그녀의 말을 따르자면, 부유해지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것이다. 캐서린 폰더(Catherine Ponder)의 <성서 속의 백만장자 The Millionaries of genesis>(국일미디어, 2003)를 추천하는 그녀의 변을 들어보라.

“이 멋진 책에서 당신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그리고 예수가 풍요를 가르친 교사였을 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 백만장자로, 오늘날 백만장자들이 상상하는 삶보다 훨씬 부유하게 살았다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²³⁾

19) 찰스 해넬,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산티, 2005), 21쪽.

20) 찰스 해넬,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산티, 2005), 22쪽. 9번 테제도 살펴보자. “내부 세계가 조화로우면, 외부 세계에서 조화로운 여건과 우호적인 환경과 모든 최상의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내부 세계의 조화는 건강의 초석이요, 모든 위대함과 힘과 업적과 성취 그리고 성공의 필수 요소이다.”

21) 론다 번, <시크릿>, 29쪽.

22) 론다 번, <시크릿>(살림, 2007), 125쪽.

23) 론다 번, <시크릿>(살림, 2007), 134쪽.

하지만 과연 <시크릿>을 읽고, 실천해서 부자가 된 이들이 얼마나 있을까? 퍼거스 오코넬(Fergus O'Connell), <시크릿 실천법 - 부의 비밀 Earn More, Stress Less>(길벗, 2011)과 같은 책들이 추가로 나와야 했다는 것이야말로 실은 <시크릿>의 무용함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 싶다. 하지만 이런 무용함 혹은 비현실성에 대한 논의는 본고에서 더 다루지 않겠다. 그저 이러한 신념이 하나의 믿음, 즉 사실상의 종교라는 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기로 하겠다.

4. 신사고 운동과 변영신학

4.1. 개신교와 신사고 운동

신사고 운동은 그 자체로도 유사(pseudo) 종교였지만, 이에 더해서 기독교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그러한 영향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로 1952년에 출간된 <적극적 사고방식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세종서적, 2001)의 노만 빈센트 필 목사(Norman Vincent Peale, 1898-1993)와 1967년에 출간된 <불가능은 없다 Move Ahead With Possibility Thinking>(지성문화사, 2009)의 로버트 쉐러 목사(Robert Harold Schuller, 1926-2015)를 들 수 있다.²⁴⁾ 이들의 주장은 원서의 제목에서 명확하게 확인된다. “적극적 사고의 능력”이나 “긍정적 사고로 전진하라”는 모두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이전의 신사고 운동과 동일하게 생각의 힘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 목사가 신사고 운동에 속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관련한 그의 작품으로는 영어판으로 1979년에 출간된²⁵⁾ <4차원의 영적세계>(서울말씀사, 1996)가 손꼽힌다. 그 자신은 스스로 신사고 운동의 계승자로 밝힌 바가 없다. 애초에 이 사조가 한국에 그 이름으로 소개된 바가 거의 없으니, 이는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분명한 목표와 대상을 가지십시오. 그것을 마음 속에 최대한 분명하게 하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모습을 바라보며 불타는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런 다음, 믿음의 ‘실상’이 확신 있게 다가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때까지 확신있는 말로 여러분의 목표를 시인하십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²⁶⁾

여기에서 차이는 무엇이 있을까? 열렬한 기도이다. 한국 교회 특유의 통성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열렬한 기도 행위가 여기에 덧붙여져 있을 뿐이다. 하나 그것을 제외하면 다른 신사고 운동가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더욱이 이 책의 추천사를 로버트 쉐러 목사가 써주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조용기 목사를 중심으로 이들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노만 빈센트 필 목사는 (오랄 로버츠 목사와 더불어)²⁷⁾ 조용기 목사의 멘토이며, 로버트 쉐러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친구이다.

24) 이들에 대한 개괄적 자료로는 강준만의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 주체가 있는 미국사>(인물과사상사, 2013)의 5장(“처세술과 성공학”)이 유용하다. 좀 더 세밀하게 정리된 자료로는 로이 앵커(Roy M. Anker)의 *Self-Help and Popular Religion in Modern American Culture - An Interpretive Guide*(Westport, Connecticut & London: Greenwood Press, 1999)의 3-4장을 추천한다.

25) David (Paul) Yonggi Cho, *The fourth dimension* (Seoul: Seoul Logos, 1979)

26) 조용기, <4차원의 영적세계>(서울말씀사, 1996), 53쪽.

이러한 점은 그의 제자 이태근 목사(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담임)도 인정하는 바이다. “로버트 솔러나 노만 빈센트 필 박사의 긍정적 사고에 관한 이해는 조용기 목사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²⁸⁾

4.2. 신사고 운동과 믿음의 말씀 운동

<긍정의 힘>으로 세계적 스타가 된 조엘 오스틴(Joel Osteen) 목사는 조용기 목사의 정신적 후배라고 할 수 있겠다. 사실 그는 신학교에서 공부한 적이 없다. 그가 교회 사역에 본격적으로 발을 디디게 된 것은 1983년에 오럴 로버츠 대학교를 중퇴하고 텔레비전 방송을 담당함으로써 부친의 목회를 도운 것에서부터이다.²⁹⁾

조엘 오스틴은 그의 부친의 영향으로 ‘믿음의 말씀’(the word of faith) 운동에 속해 있다. 이 운동의 주동자는 케네스 해긴(Kenneth Hagin, 1917~2003)이다. “케네스 해긴은 일반적으로 “믿음운동의 아버지”이며, “믿음 교사들의 할아버지”로 인정을 받는다.”³⁰⁾ 흔히 번영 신학 혹은 번영 복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운동은 신사고 운동의 기독교 버전 가운데 하나이다. 해네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리한다.

“<긍정의 힘>과 <시크릿> 사이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둘은 모두 하나님도 꿈쩍하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의 힘을 믿는다는 공통점이 있다.”³¹⁾

그 차이점은 무엇보다도 이 운동 나름의 기독교적 구원서사와 관련된 것이다.³²⁾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보다 인간의 믿음의 능력에 더 주목하는 이 변종 기독교에 대해서 더 길게 다루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이 운동이 기독교 내부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Good Morning, Holy Spirit>(열린책들, 2005)의 베니 힌(Benny Hinn)이나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Breaking Generational Curses>(베다니출판사, 1997)의 메릴린 히키(Marilyn Hickey) 등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로 더 명성이 높은 부흥사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신사고 운동과 마찬가지로 다소 느슨하게 결합되어 있는 네트워크이다.³³⁾ 각자의 신학적 주장에 일정한 이견들이 혼재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조엘 오스틴이 다녔던 대학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학교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조용기 목사의 멘토인 오럴 로버츠(Oral Roberts)가 세웠다(흥미롭게도 로버트 솔러 목사의 손자이자 그의 교회와 방송 프로그램을 물려받은 바비 솔러 목사도 이 대학을 졸업했다).³⁴⁾ <고통의

27) “지금은 하나님 품으로 가신 로버츠 목사님은 치유에 관한 사역에 조예가 깊었으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강조한 목회자로서 저의 영적인 멘토이자 스승이십니다.” 조용기,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교회성장연구소, 2010), 35쪽.

28) 김은혜, 「[설교를 말하다 10]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이태근 목사: “한국 목회자들, 영성은 깊으나 스피치 기술 부족”」, 『크리스천투데이』 2013년 1월 14일. 여기에서 다시금 신사고 운동과 믿음의 말씀 운동의 상동성이 확인되는 셈이다.

29) 류응렬, 「Joel Osteen의 설교연구」, <개혁논총> 23호(개혁신학회, 2012), 46쪽.

30) 데니스 홀링거, “7장. “부와 건강의 복음”의 역사적·사회학적 분석”,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새물결플러스, 2011), 176쪽.

31) Hank Hanegraaff, <바벨탑에 갇힌 복음 Christianity in Crisis : 21st Century>(새물결플러스, 2010), 22쪽.

32) Hank Hanegraaff, <바벨탑에 갇힌 복음 Christianity in Crisis : 21st Century>(새물결플러스, 2010), 33-41쪽.

33) Hank Hanegraaff, <바벨탑에 갇힌 복음 Christianity in Crisis : 21st Century>(새물결플러스, 2010), 29쪽.

풍랑 위를 걸을 때 *How to get through your struggles : or, You can walk on the stormy waters of your life*(서울서적, 1984)에서 잘 드러나듯이 오렐 로버츠는 믿음의 씨앗(seed-faith)이라는 사상을 강조한다. 그러한 영향이 바로 <공정의 힘>에도 드러난다.

“어려운 상황을 오히려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 신세를 타하기보다 어떤 씨앗을 뿌릴지 고민하라. 씨앗이야말로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이다.”³⁵⁾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베푸는 삶을 시작하라. 그것이 하나님께 더 많은 것을 받는 비결이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그러면 점점 더 많은 씨앗을 뿌릴 수 있게 되고, 마침내 헤아릴 수 없는 복 속에서 살게 된다.”³⁶⁾

이 씨앗은 물론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현금이다. 조엘 오스틴의 아버지는 그가 자라고 지금은 목회하는레이크우드 교회의 예배당 건립 자금을 위한 씨앗으로 “스페인 교회를 위한 건축자금”을 드렸다.³⁷⁾ 그의 말에 따르자면, 그의 아버지는 “씨 뿌리기의 원칙을 아셨다. 기근을 극복하는 최선의 방법이 씨앗을 뿌리는 것임을 아셨던 것이다. 오래지 않아 우리 교회 건축을 위한 모든 자금이 마련되었다.”³⁸⁾

신사고 운동과 신사고 운동의 가르침을 받아들인 교회가 얼마나 돈에 매이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바로 이 믿음의 씨앗을 누구보다 강조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용기 목사이다. 조용기 목사는 기독교적으로 전유된 신사고 운동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더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셈이다.

5. 결어

<공정의 힘>의 부제는 “믿는 대로 된다”이다. 제목과 더불어 책의 메시지를 잘 정리해 놓았다. 이 책과 이 책이 담지하는 신사고 운동의 가르침은 믿는 자의 욕망을 한껏 부풀리게 만든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 자기의 욕망 충족의 능력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다. 믿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며, 나아가 자신의 믿음에 대한 믿음일 것이다. 기독교의 전통적인 믿음과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고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공정의 힘>과 <시크릿>을 포함한 신사고 운동의 가르침은 한국교회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필경 교회가 우리의 영혼의 필요에 부응하기보다 우리의 본능의 욕망을 충족하기를 택했기 때문일 게다(물론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믿음을 통한 구원보다 자신의 창조 능력에 대한 믿음을 통한 풍요가 더 매력적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우리가 위에서 살펴봤듯이<공정의 힘>의 가르침은 성경의 교훈이 아니라 19세기 말에서야 형성된 사조이다. 신사고 운동은 이제 겨우 백여 년 조금 더 된 정도에 불과한 역사적 구성물이라는 뜻이다. 인류 역사 전체를 고려하면, 비교적 젊은 이단적 사상이라고 할

34) 장길남, “로버트 솔러 목사 손자, 교회와 ‘능력의 시간’ 승계”, <NEWSNNET> 2014년 10월 6일.

35) 조엘 오스틴, <공정의 힘>(두란노, 2005), 274쪽.

36) 조엘 오스틴, <공정의 힘>(두란노, 2005), 278쪽.

37) 조엘 오스틴, <공정의 힘>(두란노, 2005), 274쪽.

38) 조엘 오스틴, <공정의 힘>(두란노, 2005), 274쪽.

수 있다. 정통 기독교의 신학 사상과는 무관한 것이다. 결코 인류사에 오랫동안 은밀하게 전수해온 시크릿이 아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고, 세상을 바로 인도하려면 이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참고문헌

- Allen, James., <위대한 생각의 힘 *As a Man Thinketh*>(문예출판사, 2005).
- Anker, Roy M., *Self-Help and Popular Religion in Early American Culture - An Interpretive Guide* (Westport, Connecticut & London: Greenwood Press, 1999).
- _____, *Self-Help and Popular Religion in Modern American Culture - An Interpretive Guide* (Westport, Connecticut & London: Greenwood Press, 1999).
- Byrne, Rhonda., <시크릿 *The Secret*>(살림, 2007).
- Ehrenreich, Barbara., *Bright-Sided : How Positive Thinking Is Undermining America* (New York: Picador, 2010).
- Haanel, Charles F., <성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 *The Master Key System*>(산티, 2005).
- Hanegraaff, Hank., <바벨탑에 갇힌 복음 *Christianity in Crisis : 21st Century*>(새물결플러스, 2010).
- Hickey, Marilyn.,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산다 *Breaking Generational Curses*>(베다니출판사, 1997).
- Hinn, Benny., <안녕하세요 성령님 *Good Morning, Holy Spirit*>(열린책들, 2005).
- Hollinger, Dennis P., “7장. “부와 건강의 복음”의 역사적·사회학적 분석”, <탐욕의 복음을 버려라>(새물결플러스, 2011).
- Kiyosaki, Robert.,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Rich Dad Poor Dad*>(황금가지, 2000).
- Marsden, George M., <근본주의와 미국 문화 *Fundamentalism and American Culture : The Shaping of Twentieth Century Evangelicalism, 1870-1925*>(생명의말씀사, 1997).
- O'Connell, Fergus., <시크릿 실천법 - 부의 비밀 *Earn More, Stress Less*>(길벗, 2011).
- Osteen, Joel., <긍정의 힘 *Your Best Life Now*>(두란노, 2005).
- Ponder, Catherine., <성서 속의 백만장자 *The Millionaires of genesis*>(국일미디어, 2003).
- Peale, Norman Vincent., <적극적 사고방식 *The Power of Positive Thinking*>(세종서적, 2001).
- Roberts, Oral., <고통의 풍랑 위를 걸을 때 *How to get through your struggles : or, You can walk on the stormy waters of your life*>(서울서적, 1984).
- Schuller, Robert Harold., <불가능은 없다 *Move Ahead With Possibility Thinking*>(지성문화사, 2009).
- Wattles, Wallace D., <부의 비밀 *The Science of Getting Rich*>(흐름출판, 2010).
- Willard, Dallas., <마음의 혁신 *Renovation of the Heart*>(복있는사람, 2003).
- Zweig, Stefan., <정신의 탐험가들 *Die Heilung Durch Den Geist*>(푸른숲, 2000).
- 강준만, <미국은 세계를 어떻게 훔쳤는가 : 주제가 있는 미국사>(인물과사상사, 2013).

- _____, “공정 · 낙관 · 확신하면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가 : 노먼 빈센트 필의 적극적 사고 방식”, <인물과사상> 190호, 2014년 2월호.
- 김은혜, 「[설교를 말하다 10]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 이태근 목사: “한국 목회자들, 영성은 깊으나 스피치 기술 부족”」, 『크리스천투데이』 2013년 1월 14일.
- 류응렬, 「Joel Osteen의 설교연구」, <개혁논총> 23호(개혁신학회, 2012).
- 이원석, <거대한 사기극>(북바이북, 2013).
- 장길남, “로버트 솔러 목사 손자, 교회와 ‘능력의 시간’ 승계”, <NEWSNNET> 2014년 10월 6일.
- 조용기, <4차원의 영적세계>(서울말씀사, 1996).
- _____, <3차원의 인생을 지배하는 4차원의 영성>(교회성장연구소, 2010).
- 한기호, <베스트셀러 30년 - 우리가 사랑한 300권의 책 이야기>(교보문고, 2011).